

1. 미국 고등학교 학사일정

아래의 내용은 절대적인 요소가 아닌 하나의 예로써 이해하기 바랍니다.

- 교과 과목 : 학기 당 보통 6~8 과목을 수강
- 필수 과목 : English, Math, Science(Physics/Biology/Chemistry), US History, Gym
- 선택 과목 : World History, Economy, Literature, Computer, Geography, Art, Music, Second Language, Cooking etc.

** 학년 별 수업 과목의 예

9 학년	수학(기학), 영어, 체육, 미술, 외국어, Chorus/Orchestra
10 학년	수학, 영어(문학), 체육, 세계사, 생물, Computer/Web-Design
11 학년	수학, 영어, 경제, 미국사, 화학, 외국어
12 학년	수학(대수), 영어(작문), 물리, 정치, 경제/경영, 외국어
특별활동	미식축구,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등의 스포츠 클럽
	밴드부, 오케스트라, 드라마, 제 2 외국어

※ 과목신청은 한국에서의 이수과목을 학교의 카운셀러와 충분히 상의한 후 매 학기 초에 결정합니다.

** 학사 일정

1st Semester	
8 월	American History I/II
	English I/II Reading & Writing
	Foreign Language I (Spanish, France, Germany etc.)
	Algebra I/II
	Geometry
	Biology, Chemical, Physics
	Humanities, Music
	Computer
12 월	학기말 시험
	Christmas Break
2nd Semester	
1 월	American History I/II
	English I/II Reading & Writing
	Foreign Language I (Spanish, France, Germany etc.)
	Algebra I/II
	Biology, Chemical, Physics
	Humanities, Music
	Computer
	Spring Break
4 월	귀국 일정 확인
5 월	학기말 시험
6 월	귀국

2. 미국교과목 선택 Tip

미국 고등학교는 한국과는 달리 9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4년 체제입니다. 한 학기 당 보통 6~8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 한 학기 동안 한 과목을 수강하여 평균 75점 이상을 받으면 0.5 credit (학점)를 얻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필요한 최소 학점은 15학점이며, 선택과목을 5학점 이상 취득하여 고교 4년 과정 동안 통상 20학점 정도를 취득하고 졸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필수과목은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역사, 체육, 아트, 제2외국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졸업 필수 학점과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주와 학교마다 다릅니다.

과목을 선택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재학 중인 학교의 졸업최소 학점과 과목을 확인해야 하고, 동시에 지원 할 대학에서 요구하는 고교 필수 이수과목을 동시에 고려하여 과목 선정을 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Stanford Univ.는 3년 이상의 Foreign Language를, UC Berkeley는 최소 1년의 Visual & Performing Arts 이수를 요구합니다.

또한, 모든 과목은 난이도에 따라 Regular, Honor, AP로 나뉘어 있는데, 어려운 과목을 이수했을 때에는 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Weighted GPA가 높아져 대학 입학 지원 시 매우 유리해 집니다.

하지만, 학교마다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달라서 재학중인 학교 상황과 본인의 능력을 고려해 9학년 전에 미리 4년간의 수강할 과목 선정 계획을 미리 짜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 단계의 과목을 생략하면 AP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9학년부터 효율적인 과목선정이 되도록 해야만 졸업까지 많은 AP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AP 과목을 많이 이수하고 AP 시험을 통과하면 대입지원 시 유리해지는 것은 물론 대학 학점으로도 인정됩니다. 유학생의 경우, AP 영어나 역사 과목보다는 수학, 과학, 경제를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교과목] - 수학

선택하기가 가장 난해한 과목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통합과정인 반면에, 미국은 한 분야에 대해 깊게 파고 듭니다. 만약 미국에서 계속 학교를 다닐 계획이고, 점수를 높게 따는 것이 목표라면 Geometry, Algebra 2 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보통 한국 중3 학생들은 Geometry, 고1 학생들은 Algebra 2, 한국으로 복학하는 경우에는 Algebra 2를 추천합니다.

참고로 미국은 일반적으로 Algebra 1 → Geometry → Algebra 2 → Pre Calculus → Calculus (AB) → AP Calculus (BA) 식으로 진도가 나가며, 중간에 삼각함수 라던지 추가 과목이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고2때 이과를 재학 중에 미국에 온 학생들은 Calculus와 AP Calculus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미국은 보통 9학년(중3)이 Algebra 1, 10학년이 Geometry, 11학년이 Algebra 2 정도를 듣는데 이 파트는 한국의 중1~3학년 정도의 내용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Algebra는 중3~고2 초반 부분 정도이며, Pre Calculus ~ AP Calculus는 고1~고3 즉, 고등학교 공통수학, 수1, 수2, 미분적분이 혼합해서 나오게 됩니다.

[미국 교과목] - 사회 & 과학

사회는 보통 학교의 카운셀러가 정해줍니다. 학교와 학년마다 필수로 들어야 하는 사회과목이 있기 때문인데, 보통 9학년은 지리, 10학년은 세계사, 11학년은 미국역사 마지막으로 12학년은 미국정부를 배우게 됩니다.

과학은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생물, 화학, 물리, 물상 그리고 지구과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구과학, 물상, 생물은 9~10학년들이 많이 들으며, 화학, 물리는 11~12학년이 듣습니다. 지구과학, 물상, 생물은 물리와 화학에 비해 내용은 쉬울지 몰라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있어 독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리, 화학은 다른 3 과목에 비해 독해는 약간 쉬울 수 있어도 계산은 또 복잡합니다. 보통 생물, 물리, 화학은 한국의 생물2, 물리2, 화학2 정도로 배우게 되는데, 특히 화학은 미국 학생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과목 중 하나입니다.

[미국 교과목] - 미술 & 음악 & 체육

미술은 종류가 다양한데 3D 아트, 스튜디오 아트, 일반 아트 등이 있으며, 일반 아트의 경우 Art 1 - Art 2 식으

로 반이 올라가게 되며, 배우는 내용은 한국과 비슷합니다.

음악은 오케스트라와 일반 음악 그리고 Choir가 있는데 본인이 특정 악기를 다룰 줄 안다면 오케스트라,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한다면 Choir, 그리고 특별히 잘하진 않지만 음악을 좋아한다면 일반 음악 수업을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음악, 미술, 체육과목은 특히나 친구 사귀기에 매우 수월하므로 될 수 있는 한, 적어도 세 과목 중에 한 과목, 많으면 두 과목 정도는 듣는 게 좋습니다. 체육은 일반적인 PE가 있는데 일부 학교에는 JROTC라는 Boy Scout도 있습니다. 군복을 입고, 총을 쓰는 것도 배우며 그야말로 군대에 관한 걸 배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교과목] - 드라마 & 요리 & 기타 등등

드라마의 경우, 무대설치도 직접하며 영화나 연극을 보고 에세이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연극은 따로 배우지는 않는데, 이 경우 드라마 클럽을 통해 추가적인 연습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요리, 가정과목들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P라는 명칭이 앞에 붙은 과목은 대학의 학점을 미리 딸 수 있는 과목으로 예를 들어, 한 학생이 AP Calculus 수업을 들은 경우, 학기말에 AP수학 시험(5점 만점에 최소 4점 이상)을 봐서 시험에 패스한 경우, 대학 1학년 수학 과목을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AP과정은 과목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카운셀러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3. 학년 별 미국 대입 준비

대학교에 지원하려는 학생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준비과정 체크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9학년 계획표 >

9학년부터 대학입학을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교내 클럽활동이나 교외 봉사활동, 과외활동 등도 중요합니다. 본인의 작문이나 Report 중에서 우수한 것을 모아 둡니다. 유학생일 경우 미국 학생들과 비교해서 어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의 서적을 통해 단어 학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SAT 시험과 토플 시험은 풍부한 어휘력만 갖추고 있다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이 시기에는 1년에 10권 이상의 책을 읽으면 소설책 뿐 아니라 잡지, 자연 과학을 다룬 서적 그리고 단문으로 구성된 에세이 집을 많이 읽습니다. 9학년 시기는 미국 대학 입학 시험(SAT, ACT)에 관한 어휘력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무엇보다 많은 책을 통한 단어 암기가 중요합니다. 9학년 계획표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 학기 수강 신청은 어려운 과목보다 쉬운 과목 위주로 구성

유학생일 경우 적응 기간이 필요하기에 첫 학기부터 어려운 과목 (과학, 미국 역사 등)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2. 학교 카운셀러와 상의 후 교내 클럽 활동과 교외 봉사 활동에 참가

클럽 활동과 봉사 활동에 관한 내역서를 꼭 작성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Extracurricular Activities와 Volunteer Activities 등을 참고하면 됩니다.

3. 매달 2권의 책 읽기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책 속에 모르는 단어는 완벽하게 암기하기를 의미합니다.

4. 과학(생물, 화학, 물리) 과목의 용어 숙지

유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바로 과학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5. 여름 방학 동안 어휘력과 문법 학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

6. 호스트 가족 혹은 학교 카운셀러에게 지역 도서관의 위치 확인

미국에서는 지역마다 지역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기에 그곳에서 다양한 책과 영화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0학년 계획표 >

10학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대학 입시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미국의 거의 모든 대학들은 10학년 GPA 성적을 20~30% 정도 반영합니다. 또한 10학년부터 SAT 시험을 준비하며 학교에서 혹은 지역에서 주관하는 각종 대회에 참가해야 합니다. 물론 9학년 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책을 읽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강과목

수강 과목은 영어, 수학, 과학(생물 혹은 화학 중 하나 선택), 사회(미국역사 혹은 미국 정부 중 하나 선택), 외국어 그리고 미술이나 음악 등과 관련된 과목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10학년부터는 GPA 성적이 반영되므로 미국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과목 위주로 수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강 과목 계획표 혹은 미국 대학 검색의 희망 대학을 참고하면 됩니다.

2. PSAT 시험 접수 및 응시

PSAT 시험은 SAT 시험의 모의고사 시험으로 11학년에 응시 할 SAT 시험을 미리 접하는 시험입니다. PSAT 시험은 1년에 4번을 응시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년 2번 즉 학기마다 1번씩 응시하면 됩니다. 우선 수강신청이 끝난 후 학교 카운슬러에게 PSAT 시험 날짜와 응시 장소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SAT Test 를 참고하면 됩니다.

3. 교내 활동이나 지역 사회에서 주관하는 대회 참여

미국 대학 원서 지원 시 교내 활동에 관한 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대회에서 상장을 받을 경우 보다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대회에 참가한 후 그 대회와 관련한 내역서를 작성해야 하는 점인데 그 내역서 안에는 꼭 주관한 단체의 이름과 대회 성격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성적 관리에 많은 시간을 투자

그 이유는 10학년 1학기부터 높은 레벨의 과목을 수강해야 11학년부터 AP Course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3월에서 4월 사이 토플(TOEFL) 시험 응시

토플 시험을 응시하는 이유는 10학년 여름 방학 동안 미리 희망 대학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본인의 토플 성적을 바탕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 3개와 앞으로 노력하면 지원이 가능한 4개의 대학을 가능해 볼 수 있습니다. 희망 대학의 정보를 원한다면 미국대학 검색 등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6. 여름 방학 동안 SAT 혹은 ACT 학원 등록

다음은 학교 진학 상담 선생님께서 학생이 직접 물어보아야 하는 질문 사항을 학기에 맞게 만든 도표입니다.

10학년 1학기	10학년 2학기
1. 우등반(Honor Society)에 들어 가기 위해서는 필수 선행 과목이 무엇인가?	1. 나의 적성과 관심을 찾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2. 언제 PSAT 시험을 학교에서 볼 수 있는가?	2. 방과 후, 대학 진학을 위한 Class 혹은 SAT 시험을 준비시켜 주는 과목이 있는가?
	3. 미국 대학입학에 관한 정보가 담긴 핸드북 또는 안내 자료를 빌릴 수 있는가?
	4. 대학 진학을 위해 방과 후 집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방학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가?

< 11학년 계획표 >

11학년 시기는 미국 대학 입학 준비 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이유는 11학년 GPA 성적이 가장 많이 반영되며, 대학 입학 시험(SAT, ACT)을 준비해야 하고, 수강 과목 또한 어려운 과목으로 수강해야 하기에 힘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희망대학 및 학과에 관한 입학 정보와 합격률 그리고 합격 예상 입학 시험(SAT, ACT) 점수 등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강과목

수강과목은 희망 대학에서 요구하는 과목과 일치하게 신청해야 하며 어려운 과목으로 수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입학 담당자들이 지원자에게 그들의 11학년 수강 과목과 레벨 그리고 Credit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학 원서 서류 중 Mid-year Grade Report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해당 학교 카운슬러가 지원자의 11학년 1학기 성적을 기록한 후 지원 대학에 보냅니다. 그때부터 합격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 사용되기에 11학년 때 수강하는 과목과 성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10학년 여름방학 때 미리 7개의 희망

대학을 정하고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체크합니다. Credit이 부족한 과목 중 어려운 과목 위주로 수강하면 됩니다. 또한 희망 대학의 입학 정보와 합격률, 합격 예상 입학 시험 점수(SAT, ACT, TOEFL) 그리고 희망 학과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2. AP Course

학교 카운셀러와 상의 후 AP Course를 수강하기 바랍니다.

3. SAT / ACT Test

SAT 혹은 ACT 시험 날짜와 응시 장소를 학교 카운셀러와 상의합니다. SAT 시험은 총 1년에 7번의 응시 기회가 있습니다. 대학 입학 담당자는 시험 점수가 꾸준히 상승하는 지원자에게 큰 점수를 주기 때문에 많이 응시하는 것보다 5개월 단위로 응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SAT Subject Test

만약 희망대학에서 SAT Subject Test를 요구할 경우 11학년 때 접수해야 합니다. 명문 대학과 사립 대학일 경우 SAT 시험과 함께 SAT Subject Test를 지원자에게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 대학에서 요구하는 시험 과목을 체크한 후 그 과목이 끝난 후 바로 시험에 응시하면 됩니다.

5. 3월에서 4월 사이 TOEFL 시험 응시

학기가 끝나기 전 교사 추천서를 부탁해야 합니다. 추천서를 받을 교사 선정은 희망 학과와 연관된 과목을 진행하는 교사 분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 문과일 경우 미국 역사 선생님이나 영어 선생님 혹은 희망 학과와 비슷한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 분에게 부탁하면 됩니다. 물론 생물학이나 자연 과학에 관련된 학과일 경우 11학년 과목 신청 때 그것에 맞게 신청해야 합니다.

< 12학년 계획표 >

12학년 때는 대학 원서를 작성하고 발송하는 시기입니다. 9학년부터 받은 각종 기록, 상장, 성적표 등을 정리해야 하며, 여름 방학 때부터 지원을 준비하여 원서마감일 이전 (일반적으로 1월 1일)에 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유학생일 경우 11월과 12월 사이에 토플 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전공과목 및 학교 선정은 학교 내 진학상담 카운셀러와 상의하면 됩니다. 아래는 상담 시 학생이 직접 물어보아야 할 질문 사항입니다.

1. 다른 학교와 비교해 현재 학교에서 받는 나의 학교 성적과 수준은 어떻게 되는가?
2. 지금까지 기록된 나의 전 과목 성적표를 볼 수 있는가?
3. 희망대학에서 카운셀러 추천서를 요구한다면 추후 어떻게 하면 좀더 세부적으로 작성해 줄 수 있는가?

다음은 월별 세부 계획입니다.

9월에 해야 할 일

- 희망대학에서 요구하는 과목과 비교해 부족한 과목 위주로 수강 신청
- 해당 고등학교에서 졸업하는데 이상은 없는지 확인
- 대학 입학원서 발송 전에 성적표에 이상은 없는지 확인할 것. 잘못 기록된 부분이 있으면 카운셀러와 상의
- 각종 상장, 클럽 활동 내역서, 지역 봉사 내역서 및 포트폴리오 정리
- 희망대학 원서 요청
- 아직까지 추천서를 받지 못한 학생일 경우 해당 교사에게 추천서 작성 부탁

10월에 해야 할 일

- 진학 상담 카운셀러와 대학원서 작성
- 토플 시험 응시 (시험 결과는 각 해당 대학으로 보낼 것)
- 교사 평가서 및 추천서 확인
- Application 에세이 작성

11월에 해야 할 일

- SAT 또는 ACT 시험 응시 (시험 결과는 각 해당 대학으로 보낼 것)
- Application Essay 및 자기소개서 (Personal Statements) 등은 반드시 진학 상담 카운셀러와 검토한 후에 입학원서에 작성
- 대학 별 원서를 해당 대학으로 발송

12월에 해야 할 일

- 졸업에 이상이 없는지 모든 성적을 재확인
- 졸업반 1학기 성적을 요구하는 대학에 서류 발송

1월에 해야 할 일

- 각 대학에 본인의 입학 원서가 잘 도착했는지 확인

4월에 해야 할 일

- 합격된 대학에 최종적으로 통보
- 고등학교 카운셀러에게도 합격여부를 통보
- 합격된 원서를 낸 대학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구 자료들을 속히 보낼 것

5, 6월에 해야 할 일

- 졸업에 이상이 없는지 최종 확인
- 한국 대학 지원을 원할 경우 미리 희망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정보 확인

